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삼성 평택 팹서 찾는다



우주비행 준비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발사대 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전남광주시, 두번째 방문...시설 견학

고덕국제신도시 내 정주여건도 살펴

전은옥 “산단 조성 위해 행정력 집중”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 건설과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구축이 과제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처음 방문한 지 2개월여만에 재차 찾아 가동 중인 팹 일부와 배후 주거지 등 산업단지와 연계된 정주 여건을 살폈다.

6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관련 실·국 공무원 20여명이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둘러봤다. 지난 7월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방문단은 7일 임기를 시작하는 전은옥 신임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을 비롯해 기업 전담팀과 정주 여건 등 관련 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평택캠퍼스 내 가동 중인 팹 4기 중 일부 생산시설과 고덕국제신도시 내 조성되고 있는 배후 주거지 등 산업단지와 연계한 정주 여건

을 파악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평택을 잇따라 찾은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단지와 생산시설, 배후도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 이상을 투자해 팹 4기 규모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부지는 약 250만평 규모이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반도체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과의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 우선 개발 가능 부지의 기반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6월 첫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생산시설을 지을 땅만 확보한다고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팹 4기 전체가 가동되면 필요한 전력은 약 63GW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기에는 기존 변전소와 전력망을 활용하되 생산시설 확대에 맞춰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용수도 하루 최대 66만리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는 웨이퍼 세정 등에 대량의 물이 사용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원 확보와 관로 구축이 팹 가동 일정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이미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한 평택의 경험 이 호남 클러스터에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택은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 등 기반시설과 협력업체 집적, 배후 주거지가 함께 갖춰지면서 삼성전자의 후속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호남 클러스터 역시 팹 건설과 기반시설, 교통·물류,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따로 추진하되보다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는 부지 조성과 팹 건설 속도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를 필요 한 시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은옥 신임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평택의 생산시설과 배후도시 등을 확인해 팹 가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현장 방문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발사대 선 누리호, 오늘 5차 발사 ‘카운트다운’

오전 추진제 충전·최종 발사시각 결정

조선대 큐브위성 등 역대 최다 15기 탑재

고흥군, 관람 명소 안전 관리 요원 배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을 싣고 다섯번째 우주 비행에 나선다. 이번 발사는 국가 안보와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고도 575km 궤도에 순차 투입하는 임무로 누리호가 단순한 위성 운송을 넘어 다중 위성을 정밀하게 배치하는 ‘임무형 우주수송’ 능력을 입증할 시한대가 될 전망이다. 누리호는 5차 발사를 하루 앞둔 6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기립과 고정을 마치고 최종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

누리호는 이날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30분에 걸쳐 이동했다.

누리호는 기립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우주항공청은 7일 오전 8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추진제 충전 여부와 기상·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발사 예정 시각은 낮 12시 25분이다.

누리호는 이번 5차 발사에서 부탑재위성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큐브위성 10기를 수송한다. 누리호에 실리는 위성은 주탑재 위성까지 합치면 모두 15기로, 역대 최다다. 여기엔 조선대학교가 참여한 큐브위성도 실린다.

부탑재위성 10기는 우주방사선, 해양환경 등을 관측하는 동시에 광통신, 국산 전자부품, 위성 사출 기술 등을 검증한다.

또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에서 의약품 결정을 성장시키고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된다.

이번 누리호 발사는 민간 주도 우주 개발(뉴스페이스) 전환의 과정 중 일부이기도 하다.

한편 고흥군은 최초의 야간 발사였던 지난해 4차보다 관람 여건이 좋아 역사적인 발사 현장을 함께하려는 관람객이 몰려들 것으로 보고 주요 관람 지점마다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해 혼잡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 지자체는 비행 방향 폭 24km, 길이 78km 범위 해상을 통제하고 여객·화물·어선 등 안전 운항을 지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산불 진화 대원, 의료 인력도 곳곳에 배치해 성공적인 발사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oday	
‘개문발차’ 광주중수청 과제 산적	6면
국회도서관 유치 남구도론회 ‘아수라장’	7면
KIA ‘3위 굳히기’ 셈법은	16면

제18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수원**주최 한빛원자력본부

점수마감
10.14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인회 접수 인정

공모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품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 x 14" (장정불요)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빌딩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수 4점 이내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접수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도착분
심사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1시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심사방법 2026년 10월 22일(목)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kphoto.or.kr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http://www.kjdaily.com
시상일시 2026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예정)
시상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예정)/광주매일신문 본사

시상내역

- 일반공모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특별(학생)부문**
 - 대상(1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및 메달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패

기타사항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자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을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o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야 함.
초대작가 작품 e-mail 제출 (cjkg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

THE 18TH KJ DAILY PHOTO EXHIBITION